

[1958-05-15,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8년 5월 15일, 한국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위해 시카고를 떠난 지 8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5주가 남았고, 이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침례교 총회의 충실한 선교사들과 함께 필리핀과 일본의 선교지를 각각 10일씩 순회했습니다. 저는 현지 국민들과 선교사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은 홍보 목적으로 두 편의 새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고 선교사, 신자 및 교회를 격려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모든 곳의 선교사들은 매우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4월 11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곧바로 하루 7회에 이르는 매우 빡빡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한 주간은 대구에서 매일 수천 명의 고등학생, 전문학교, 대학생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3~8일 동안 새벽 4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30분 또는 9시에 예배를 드리는 부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영성을 지닌 네덜란드 청년 키즈 글라스(Kees Glas) 선교사와 저의 유능한 통역사 피터 강(Peter Kang)과 5개 도시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학교, 교도소, 병원, 군대, 성경연구소, 한센병 환자 정착촌 등을 방문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8개의 보육원과 전쟁 과부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며칠 전 한 보육원의 원장님에게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나서기 전까지 어린이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연료도 피난처도 없이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지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거의 모든 어린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원장님은 감사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이야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저 역시 크게 감동하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보잘것없지만, 후원자들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했습니다! 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광경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보육원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이 제가 떠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보육원을 제공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도둑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고, 학교에 갈 수 있고, 우리 중 몇몇은 주일학교 수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보육원 출신의 훌륭한 젊은이 8명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고집 센 비행 청소년들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연구소의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보육원 사역의 놀라운 결과에 대해 얼마든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방문하든 저는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거리에 있지만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은 시청에서 어린이들을 트럭에 가득 실어 우리 보육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원장님들에게 어린이들을 다시 거리로 데리고 나가,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와 죄와 굶주림의 삶으로 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보육원들은 지금도 너무 붐비고 더 이상 음식과 옷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린이들을 돕고 후원하기 위한 마음을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사역을 확대하여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데려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 땅의 기독교 리더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 98명의 전도사들의 사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회 본부로 오는 많은 사람들과 세 번의 지역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동 경비를 지불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격려하며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매일 오후에 지프차를 타고 산골짜기에서 수 마일을 달려 지난 몇 달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미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는 나무 숭배자, 주물 숭배자, 우상 숭배자, 조상 숭배자들을 보았지만, 바로 이 사람들 중 몇몇이 우리 전도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난생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자신들에게 영혼이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새로운 신자들과 진흙 바닥에 둘러앉아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3개월 전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그들은 답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소처럼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이 중 한 마을에서 예배가 끝난 후, 저는 그 마을 이장과 그 아내를 따라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들어가 우상 2개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짚으로 깔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연기 속에 타오르는 동안 성경책과 찬송가를 손에 들고 엄숙하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가 살아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옆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수백 명을 포함해 놀라운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이교도 마을에서 사역하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벌어들이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있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과 기도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사역을 기뻐하며,

에버렛 F. 스완슨 올림